

복구, 어린이공원 조성 강행...실효성 논란 재점화

전문가 TF팀 오늘 현장방문 부지 선정 적정성 여부 재검토 “동림·매곡동 부적합·사고 우려”

광주 복구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본보 2022년 10월 27일자 6면·2022년 11월 22일자 6면)과 관련해 토지수용 절차 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복구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성 구간이 '시가지'에 해당할 경우 법적 최소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부지 매입이 가능한 입장이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용이성·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복구 등에 따르면 복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곡·동은 제2 어린이공원) 조성 검토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TF팀을 구성했다.

이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 부지 매입과 관련해 열세 낭비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TF팀은 복구정 공무원과 복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복구는 매곡동과 동림동 부지 매입 구간이 공원 조성 대상지로서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TF팀 1차 회의를 열었고, 오는 9일 TF팀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TF팀은 이후 3차 회의를 거쳐 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 부지 매입 선정을 다음달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복구는 지난 2020년 매곡·동은 제2·신안 제1 어린이공원을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곡동과 동림동, 용봉동 부지를 선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5일 돌연 LH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6일 미조정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추진계획(안)을 자체 수립해 졸속·편법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TF팀 1차 회의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 조성 부지 매입 구간이 법적 기준치를 못 미쳐 규정을

위반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매곡동과 동림동 조성 구간의 토지 면적은 각각 1,371㎡, 1,445㎡로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복구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돼 1,500㎡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1,5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부지 매입 계획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하면서까지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복구의회 김기주 의원은 "명목상으로 지역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조

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곡동과 동림동의 경우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높은 용벽이 가로막혀 있는 등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된다"며 "특히 동림동 미조정공원 부지 인근은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미조정공원 부지 인근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구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난 201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돼 추진하게 된 것이다"며 "TF팀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안으로 부지 매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로봇들의 춤사위 지난 7일 오후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자녀와 함께 로봇댄스를 관람하며 주말을 즐기고 있다. /김태규 기자

11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 추모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8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 사고 현장 앞에서 진행된다. 지자체 등이 주도하는 추모식 대신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

족협의회가 직접 주관한다.

추모식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구조·수색 활동이 진행되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가족과 내빈을 소개한 뒤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6명을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안정호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송갑석 국회의원과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이강 서구청장이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추모제에서는 현재 공사에 투입된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한 현장이 되기 위한 결의대회'도 연다. 희생자 추모 분향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사고 현장 앞에 마련돼 추모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헌화·분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린 기자

“민주주의 발전·계승 역행” “5·18 교육과정 삭제 철회”

5개 구청장·교사들 성명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삭제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삭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오월 정신 보편적 가치 회복’을 약속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5·18을 지우려 한다”며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광주지역 교사들도 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삭제 논란과 관련 5·18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 분위기를 우려했다.

박상철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논란을 두고 “교육 내용과 분량에 적정·간소화하는 취지인 대강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논란을 불식시키는 답변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역사교육 전반에 대강화 과정을 적용한

것은 이해되나 정작 6·25 전쟁에 ‘남침’이라는 부연을 넣은 등 사실상 세부 지침을 마련한 점 등이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백성동 극락초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5·18이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생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백 교사는 “현재도 지역과 교사 개개인에 따라서는 5·18 교육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교육과정 내 5·18 언급이 없다면 이같은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은 일각에서 부추기는 5·18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막는데 선두 역할을 해왔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이같은 역할이 약화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부원 살레시오교 교사는 이번 논란에 5·18이 또다시 상처를 받았으며 정부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그는 “대강화 과정에서 5·18이 누락됐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간 5·18에 무관심해온 정부의 행태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며 “극우 세력의 주장인 북한군 침투설 등에 대해 허위·불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묵인하며 5·18을 방치해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황애란·민찬기 기자

경매교육 [기초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주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전남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시외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010-2614-9801

사무실 (임대) 상무지구

▶ 중심상업지구 → 유흥 가능 (매매가능)

- ① 6층 (80평) → 권리금 없음
보3천 월 220만 (현 사무실 운영중)
(유흥, 룸 노래홀, 홀덤바)
- ② 7층 (60평) → 권리금 없음
(보 2천) 월 130만
(유흥, 룸 노래홀, 홀덤바)
- ③ 6층,7층 (140평) → 임대 가능
- ④ 개인사무실 (공동사무실 가능)
책상,컴퓨터 무료제공
→ 부동산,경매,분양,일반사무실 가능

010-6670-9800

장성토지 (매매) 분양

- 전원주택 토지 (6m 도로 접)
- 장성댐 5분 (광주 20분)
- 즉시주택 건축 가능 (정남향)
- 장성댐 등산책로 있음
- 수도, 전기, 하수도 시설 완비
(100평, 150평, 200평, 300평 가능)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이전,주택 8평형)
(세컨하우스,별장,이동주택가능)